

*Begin Again by going to the Heart

*심장으로 가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

앤은 그녀의 남편인 마크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사제를 만난 후 상황은 나아졌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했고, 그녀가 시도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이틀 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을 계속 막았고, 매일 더 낙담했습니다.

- 토요일, 그녀는 뭔가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던 것은 이사하는 것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마크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집이 딱 차게 느껴져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큰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었고 단지 이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어느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준 후,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배당에 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 괴물은 내 바로 앞에 있는 제단에 있었다. 나는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깊은 사랑의 느낌을 느꼈다. 몇 분 동안, 그것이 내가 느낀 전부였다...그 순간, 내 안에 저항하는 무언가도 무너졌다. 나는 마크가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날 저녁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긴장이 가라 앉기 시작했다”(Fr. Timothy Gallagher, *Discernment of Spirits in Marriage*, 37-39).

여기에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군가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께로 움직이게하고 있고, 그녀를 위해 그분의 계획을 알아차리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감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더 많은 예를 들어주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온라인 채팅에서 이것을 더 나눌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간단한 주제는: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곳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더 감지하십시오!

바오로 성인은 제 2 독서에서, “형제 여러분: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갈라 4:4-5). 여기에서 세가지 아이디어에 주목하십시오.

- 1) ‘때가 차자’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날짜를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 때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 2) 그분의 계획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목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주의 자연적인 영혼을 믿었던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Raymond Brow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472). 이러한 영들은 실재가 아니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직 하나뿐인 자연적인 아들 예수를 가지고 계시지만,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입양됩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를 만나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계획을 세운 사랑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계획을 알게 되면, 앤이

예배당에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갖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그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지를 알았습니다.

- 3) **그분의 계획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나’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에 동의한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협조해야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 복음서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2:19). 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목자들로부터 방금 들은 것을 영혼에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구약 성서에서 들은 예언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Luke,*

42-43).

명성있는 영적 작가이자 운영자인 조지 애센브레너, SJ 신부는 인간의 3차원에 대해 씁니다: 1) 우리의 외적 행동 방식; 2) 우리의 느낌과 감정인 우리 영혼의 ‘표면’; 3) 영혼의 ‘핵심’ (*Portrait of the Authentic Celibate in Our American Culture, Chicago Studies, Vol 45:2, Summer 2006, pp 183-203*). 여기에 핵심, 즉 마음의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

- 비록 우리의 감정이 노숙자에게 떨어져 있기를 원하면서도, 그에게 5불을 주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 사제가 그의 임무가 도전적일지라도 주교에게 복종합니다. 선택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격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십대 청소년이 설거지를 하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말썽을 피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을 돕고 싶어합니다.
- 한 젊은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예배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 움직임을 따르고 있습니다.

- 실화: 한 어머니가 매일 학교로 떠나기 전에 딸에게 “널 보는게 좋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딸에게 남은 평생 동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알파 기간 동안 비신자가 기도를 받으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외적의 행동과 느낌의 수준에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심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 심장에 대한 인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께서 거기에 둔 것에 대해 우리 공동체를 개방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세가지 영역입니다.

- 1) **우정.** 나는 나의 우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화는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니?” 자, 만약 여러분이 기꺼이 공유한다면, 이것은 매우 친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 그 이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경험, 정당한 요구, 고통, 갈망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도중 일어나는 일, 하느님이 그들을 만지는 곳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서로 이 수준까지 나아가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감 속에 사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 2) **고백성사.**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고백성사 중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때때로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가 “당신 마음 속에 무슨일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 예를 들어, 내가 고백하러 갔을 때에 사제가 나에게 ‘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냐?’ 물으면, “나는 이 죄를 없애고 싶다.”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매우 사랑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
- 이제부터 고백 성사때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상담이나 영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황한 토론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옆두에 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그것은 보통 한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이름과 그 횟수를 말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을 위해 몇분 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과 협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온라인 채팅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의 예를 들어보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교구 비전. 나는 우리 교구 가족을 위해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부여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분께서 우리에 다시 상상하라고 부르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교구의 비전은 지난 3년 동안 4가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리가 거룩함과 사명 속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비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중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안정기에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건강한 것들이 성장한

후에 우리는 기도 생활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특히 선교의사명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고 계신지를 다시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일년 내내 이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8개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천주교 지도자들과
분별하고 대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성애와 특별한 부름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니퍼의 두 자녀는 둘다 두살 미만이었고,
세 번째 자녀를 임신했다. 5년 전 여러분이 그녀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라면,
그녀는 성공한 직업 여성이 될것이고 결혼은 관심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그녀의 아이들이 조용해 지자, 그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왔습니다: ‘나는 아이 갖는 것을 끝내지 못 할지도 몰라.’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 가정에서 외동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들은 사촌을
갖지 못 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이었지만, 영적에 더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루시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중고 미니밴을
살 만한 충분한 돈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에게
대가족을 가지라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 어느 날, 그녀가 네 째를 임신한 것을 알게된 후, 그녀는 교구에 들러
평화를 빌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대 가족을 가지라는 부름에서
도망 치려고 노력 해왔고, 이제는 포기해야할 때였습니다..이것에 대해
계속 싸우는 것이.. 진정 옳은 것라고 느꼈어요.”
- 미사를 떠나려던 순간, 그녀는 성당 밖에서 결혼식 리허설을 하는 모든
연령대의 30명 정도 되는 멕시코 천주교 신자를 보고, 어떤 메시지를
감지했습니다: 멈춰서 지켜봐!. 이 그룹은 너무 기쁘고 따뜻해 보였고

그녀에게 행복했던 어린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전의
완전체. 그러다가 그녀는 대가족의 미래를 상상했고, 그녀의 아이들이
25살이된 추수감사절, 또는 그들이 50이 되었을 때 그녀의 병실에 꽃을
가져다 줄 때인 먼 장래를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찾던
평화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있었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유별나게 열려있는 길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Jennifer Fulwiler, *One Beautiful Dream*, 19, 38, 49, 61-65).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주 그녀에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때문에
그녀의 책은 “아름다운 꿈 하나”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심장으로 가는
것으로 다시 시작합니다.